

## 세계도시동향

헤드라인뉴스	1	‘인생 100세 시대’ 고령자 창업 지원	가나가와
문화·관광	3	‘여름철 문화·여가시설, 행사 총정리’ 가이드북 배포	뉴욕
환경·안전	5	‘지역안전 지도 만들기’ 매뉴얼 제작	도쿄
도시교통	7	대중교통 연계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시범 운영	로스앤젤레스
도시계획·주택	9	고도제한 완화로 도심 스카이라인 높아진다	시드니
	12	‘임대료 안정화’ 세입자 권리안내 캠페인	로스앤젤레스
	13	“주택건설조합 기능 강화해 주택공급 확대”	원헨

## ‘인생 100세 시대’ 고령자 창업 지원

창업체험 워크숍, 창업스쿨 등 ‘실버벤처’ 사업 추진

일본 가나가와현 / 사회·복지

- 일본 가나가와현은 기업을 퇴직한 고령자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‘실버벤처’ 사업을 계획 중
  - 이 사업은 가나가와현이 고령자 증가에 대비해 수립한 ‘인생 100세 시대의 설계도’ 중 산업노동 분야와 관련된 사업 중 하나임.
  - 현(県)은 ‘실버벤처’ 사업의 진행을 위해 2016년 4월 ‘실버벤처 사업 전개 지원 사업’과 ‘실버벤처 창출 촉진사업’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
  
- 배경
  - 60세 이상의 창업자 증가
    - 중소기업백서에 따르면 2012년 창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32.4%로, 1992년(14.2%) 대비 20년 동안 20% 이상 증가
    -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도 1992년 5.9%에서 2012년 15.5%로 2배 이상 증가
  
  - 고령자의 창업 및 육성지원 대책 미비
    -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지원 대책은 고령자의 취업 지원임.
    - 하지만 고령자의 창업을 육성하는 지자체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창업·육성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
  
- 주요 내용
  - 실버벤처에 도전했던 선배 기업가의 체험담을 듣는 장소를 마련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워크숍 진행
  - 창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‘실버 창업스쿨’ 개설
  - 실제 창업에 착수하는 고령자를 위해 저렴한 임대사무실을 조성하고 자금조달 및 상품·고객관리 등의 경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구조 구축

- 실버벤처 사업 전개 지원사업
  - 창업 직후의 실버벤처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임대사무실 조성·제공
  - 실버벤처의 초기 자금조달 및 제품·서비스 개선 등을 조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배치
  - 현(縣) 내 실버벤처가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의 사무소 설치
  - 실버벤처가 다른 실버벤처나 다른 세대의 벤처와 교류할 기회 창출
  
- 실버벤처 창출 촉진사업
  - 지역 이벤트 프로그램
    -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실버벤처의 사업내용 발표회 개최
    - 사업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체험 워크숍 개최 등
  - 현(縣) 전체 이벤트 프로그램
    - 저명한 실버 창업가 초청 연설회 개최
    - 실버계층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오디션 실시

<http://mainichi.jp/articles/20160214/ddl/k14/020/038000c>

<http://www.pref.kanagawa.jp/cnt/f534532/>

<http://www.pref.kanagawa.jp/cnt/f534534/>

# 문화·관광

## ‘여름철 문화·여가시설, 행사 총정리’ 가이드북 배포

미국 뉴욕시 / 문화·관광

- 미국 뉴욕시는 2016년 여름철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, 가족단위 여가시설, 행사 등을 한곳에 모아 정리한 가이드북을 온·오프라인으로 제작·배포
- 배경
  - 뉴욕시는 매년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, 전시회와 콘서트를 개최
  -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및 바비큐 시설 등은 인근 지역 주민이 아니면 위치나 이용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2015년부터 가이드북을 제작



뉴욕시의 여름철 행사 가이드북 표지(좌)와 날짜별 주요 내용(우)

- 주요 행사
  - 문화축제, 콘서트, 거리 축제, 영화 페스티벌 등의 무료행사
  - 공공도서관, 문화예술 분야의 비정부기구(NGO), 문화재단, 뉴욕시에서 주관하는 단발적인 행사
  
- 가이드북에서 제공하는 정보
  - 온라인 가이드북을 이용해 날짜, 행사, 분야별로 정보를 제공
  - 상세정보에는 행사명, 장소, 관련 홈페이지와 행사 내용의 개요가 수록

<http://www1.nyc.gov/site/dycd/involved/funding-and-support/summer-fun-guide.page>

# 환경·안전

## ‘지역안전 지도 만들기’ 매뉴얼 제작

일본 도쿄都 / 환경·안전

- 일본 도쿄都 청소년·치안대책본부는 아이들이 통학로 등을 다니면서 ‘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’에 대한 판단능력을 키울 수 있는 ‘지역안전 지도 만들기 매뉴얼(地域安全マップづくり指導マニュアル)’을 제작
  - ‘지역안전 지도’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고, 주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장소 등을 지도에 표시하는 학습 과정을 통해 범죄예방 교육을 시행
- ‘지역안전 지도’ 만들기
  - 준비작업
    - 지도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교사, 보조교사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관련자에게 협조를 요청
    - 복수의 조사장소 선정
    - 현지조사에 필요한 물품 등을 준비
  - 사전작업
    - 위험 예측에 필요한 것은 ‘사람’이 아닌 ‘장소’라는 사실을 인식시킴.
    - ‘들어가기 쉬움’과 ‘잘 보이지 않음’이란 2개의 키워드에 대한 교육 시행
  - 현지조사
    - 5~7명을 한 조로 해서 조장, 부조장, 사진 담당, 지도 담당, 인터뷰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
    - 어린이들이 2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스스로 위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에 대한 해독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.
    -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와 어려운 장소 등을 사진 촬영
    - 지역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한 사회성 향상

- 지도 작성
    - 어린이들이 다닌 조사경로의 가로 경관을 그림으로 그림.
    - 현지조사에서 촬영한 사진을 붙임.
    -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와 어려운 장소에 대한 설명을 배웠던 키워드를 사용하여 작성
  
  - 발표회
    - 조사경로 상의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와 어려운 장소를 키워드로 설명
    - 학습한 내용을 반복하여 ‘안전을 위한 주의사항’을 지도
- 기대효과
- 범죄피해 방지 능력 향상
  -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 증진
  - 지역에 대한 애착심 고양
  - 비행방지 능력 육성

[http://www.bouhan.metro.tokyo.jp/02\\_learn/03\\_map/](http://www.bouhan.metro.tokyo.jp/02_learn/03_map/)

[http://www.bouhan.metro.tokyo.jp/02\\_learn/03\\_map/map\\_movie.html](http://www.bouhan.metro.tokyo.jp/02_learn/03_map/map_movie.html)

[http://www.bouhan.metro.tokyo.jp/02\\_learn/03\\_map/map\\_movie3.html](http://www.bouhan.metro.tokyo.jp/02_learn/03_map/map_movie3.html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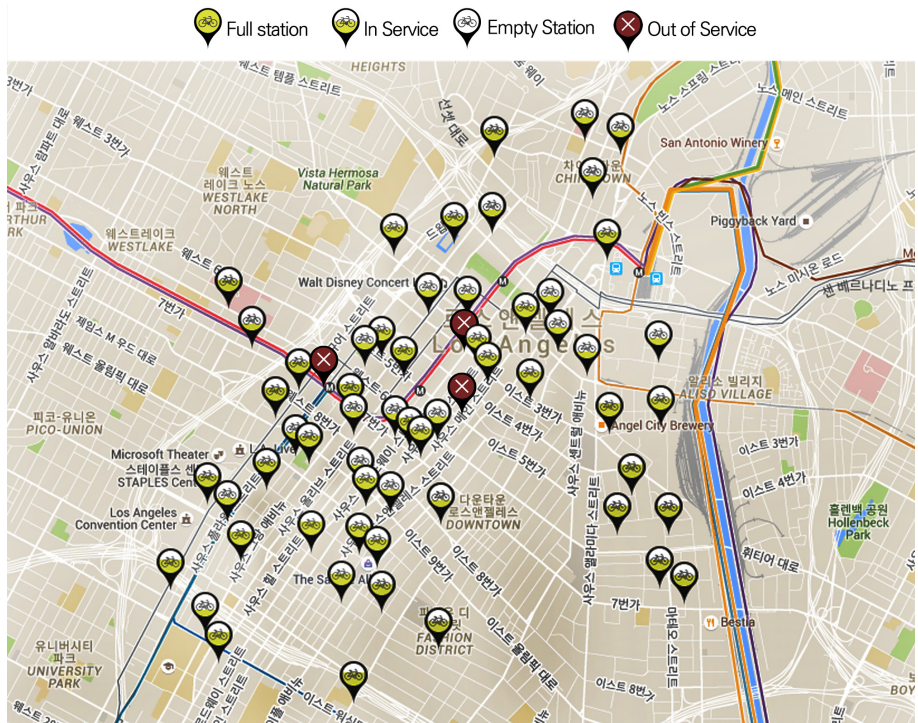
[http://www.bouhan.metro.tokyo.jp/02\\_learn/03\\_map/index.html](http://www.bouhan.metro.tokyo.jp/02_learn/03_map/index.html)

# 도시교통

## 대중교통 연계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시범 운영

미국 로스앤젤레스시 / 도시교통

- 미국 로스앤젤레스시는 도심 내 교통체증 감소와 저렴한 교통수단 제공을 위해 LA 카운티 교통국(Metro)과 함께 다운타운 내에서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'자전거 공유(Metro Bike Share)' 프로그램을 7월부터 LA 다운타운에서 시범 운영
- 주요 내용
  - 자전거 대여소 설치
    - 시는 다운타운에 65개의 대여소를 설치하고 1,000대의 자전거를 비치
    - 대여소는 주거지역, 상업지역, 학교, 도서관, 박물관 등에 설치



자전거 대여소 위치(<https://bikeshare.metro.net/>)



- 이용방법
  -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
  - 기존 대중교통 카드(TAP card)를 이용하여 자전거 대여
  - 핸드폰 앱으로 패스 구입, 대여 장소, 이용 가능 대수 등의 정보를 제공
  - 단, 시범운영 기간인 7월에 한하여 대여소 무인안내기에서 신용카드로 패스를 구매하면 자전거 대여 가능
  
- 패스의 종류
  - 1개월 패스는 20달러(23,000원)이며 30분 이내는 무료, 이후로 30분씩 초과할 때마다 1.75달러(2,000원) 부과
  - 자유(Flex) 패스는 연 40달러(46,000원)이며 30분 이내와 이후로 30분씩 초과할 때마다 1.75달러(2,000원) 부과
  - 일반(Walk-up) 패스는 30분씩 초과할 때마다 3.50달러(4,000원) 부과
  
- 기타사항
  - 시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110만 달러(11억 5,000만 원)를 투입
  - 메트로는 자전거 공유지역을 늘리기 위해 자전거 7,000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
  - 또한 2017년부터 다른 지역으로 확대·운영할 예정

<http://www.lamayor.org/mayor-garcetti-hundreds-cyclists-launch-metro-bike-share-downtown-la>

<http://www.bicycletransit.com/los-angeles/>

<https://bikeshare.metro.net/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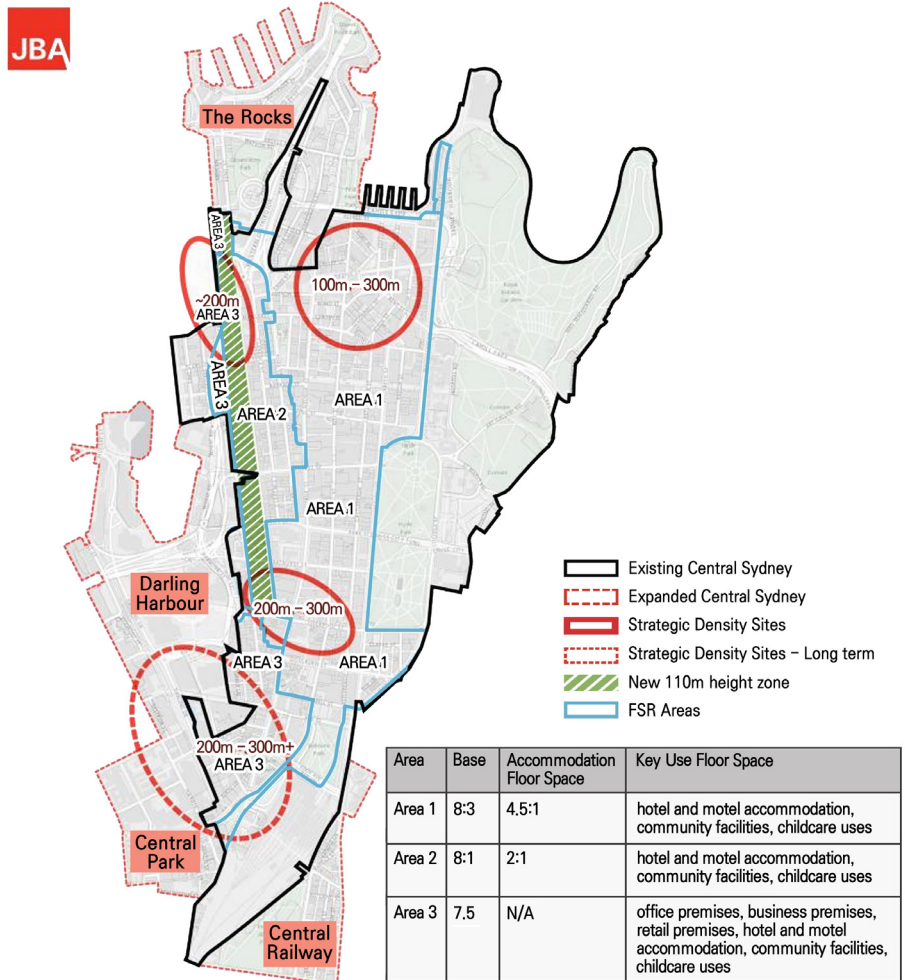
# 도시계획·주택

## 고도제한 완화로 도심 스카이라인 높아진다

호주 시드니市 / 도시계획·주택

- 호주 시드니市는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을 목표로 3년 동안 준비한 ‘시드니 도심개발전략 (Central Sydney Planning Strategy)’의 초안을 발표
  - 시드니시는 이 계획을 통해 향후 20년간 시의 개발방향에 대한 지침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
  - 또한 거주자와 통근자 등 도심의 유동인구를 늘려 현재보다 밀도가 더 높은 도시로 변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
  
- 배경
  - 현재 시드니시의 스카이라인과 도시형성은 1971년 수립된 ‘시드니 전략계획(City of Sydney Strategic Plan)’의 결과물임.
  - 도시기능에 대한 욕구변화와 시드니를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시킬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 인식
  - 시드니시의 지형적 한계 극복
    - 시드니시는 도심이 항구로 둘러싸여 있어 도심 팽창이 여의치 않음.
    - 최근 주거지역 개발 때문에 물리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
  - 성장과 주거 간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의 필요성 수용
    - 시는 최근 인구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용지 공급과 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,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받음.
    - 시의 경제적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해 도심개발 방향의 재조정이 필요
  
- 주요 내용
  - 도심의 바닥면적(Floor Space) 증가
    - 20년 후 시드니시는 현재보다 2,900만㎡가 늘어난 바닥면적을 확보
    - 늘어난 바닥면적은 추가로 창출된 10만 명의 고용인력이 채울 것으로 전망

- 주거와 상업업무의 복합적 사용(Mixed-Use)
  - 55m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주거용으로 개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고층 아파트에 주거와 상업용의 비율을 50:50으로 적용
  - 또한 도심 서쪽지역(그림의 초록색 영역)의 고도제한을 현행 80m에서 110m로 완화
  - 모든 고층건물(그림의 적색선 이내 지역)은 사선거리와 전망, 바람의 영향, 일조량 및 공기의 흐름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방향을 결정
  - 이를 위해 초고층건물은 최소 1,000㎡의 기초부지가 필요



도심전략에 따른 건물 고도(안)

- 어포터블 하우징(Affordable Housing) 공급 확대 등
    - 300~520개의 어포터블 하우징을 건설
  - 도심 건물의 고도제한 완화
    - 300m 이상이 되는 건물의 건축이 가능
- 도심전략의 핵심 조치(Key Moves)
- 도심 건물의 고도제한 완화와 복합용도 관리(Mixed Use Control)를 통한 고용 창출 및 고용능력 향상
  - 도시의 전망, 일조량, 풍량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셋백\* 제한
  -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단절된 지역의 사용량 향상
  - 초고층건물 밀집지역의 고용 성장
  - 경제수준과 생활수준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
  -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(Zero-Net Energy) 건물 건축
  - 도심 문화재와 공공장소의 보존
  - 도보와 자전거를 위한 도로망 건설에 우선순위를 둬.
  -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파트너십과 협력사업을 통한 도시설계
  - 도심전략 시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

<http://www.sydneymedia.com.au/skyline-vision-to-boost-economy-and-employment/>

[http://www.cityofsydney.nsw.gov.au/\\_\\_data/assets/pdf\\_file/0011/260003/160719\\_PDC\\_ITEM04.pdf](http://www.cityofsydney.nsw.gov.au/__data/assets/pdf_file/0011/260003/160719_PDC_ITEM04.pdf)

---

\* 셋백(SetBack): 도로 또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까지 건물을 후퇴시키는 것

## ‘임대료 안정화’ 세입자 권리안내 캠페인

미국 로스앤젤레스시 / 도시계획·주택

- 미국 로스앤젤레스시는 197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등 2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의 임대료를 연간 3%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‘임대료 안정화 조례(RSO: Rent Stabilization Ordinance)’의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‘세입자 권리 안내(Home for Renters)’ 캠페인을 실시
  - 시는 다양한 방법의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RSO 정보를 제공
- 배경
  - LA지역 내 건물 62만 4,000여 동(LA 아파트의 75%)이 RSO 적용대상이며, 가구의 절반가량이 RSO가 적용되는 건물에서 거주
  - 시의 조사 결과 해당 가구의 1/3만이 조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RSO의 주요 내용
  - 임대료는 12개월에 한 번 인상
  - 임대료 및 보증금의 인상 폭은 연 3%로 제한
  - 전기, 가스 등의 요금을 건물주가 부담할 때 1% 추가 인상이 가능
  - 임대료 인상은 적용 30일 이전에 세입자에게 알려야 함.
  - RSO 적용대상 건물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알리는 통보문을 부착해야 함.
- 캠페인의 주요 내용
  - 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
    - 건물주와 임대인의 권리 및 지켜야 할 규정 등을 안내
    - 법적으로 인정되는 퇴거 이유, 퇴거 형태, 임대료 인상 제한 등 RSO에 따른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건물주, 세입자 등 대상자별로 상세하게 제공
  - 주민이 RSO와 관련된 사진이나 의견 등을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통의 기회 확대

<http://www.lamayor.org/mayor-garcetti-launches-campaign-protect-angelenos-living-rent-stabilized-housing>

<http://la.curbed.com/2016/7/12/12164544/tenants-rights-guide-la-campaign>

## “주택건설조합 기능 강화해 주택공급 확대”

독일 뮌헨市 / 도시계획·주택

- 독일 뮌헨市는 주택문제 해결과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‘더 많은 거주(Mehr Wohnen)’라는 주제로 2016년 7월 콘퍼런스를 개최
- 배경
  - 뮌헨시는 다양한 집단의 요구에 적합한 주택 공급을 위해 ‘제5기 뮌헨 거주(Wohnen in München V)’ 프로그램을 운영
    - 이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되며, 총 8억 유로(1조 원)의 예산을 투입
    - 이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2015년까지 약 1,800호의 주택이 건설되었으며, 올해 말까지 약 7,000호의 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
- 주요 발표내용
  - 주택건설조합의 기능 강화
    - 뮌헨시는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공기업인 뮌헨주택건설공사와 뮌헨공동주택조합을 통해 2016년부터 10년간 2억 5,000만 유로(3,120억 원)를 투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실행할 예정
    - 또한 공기업들이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,500만 유로(187억 원)를 추가로 출자할 예정
    - 이를 통해 2018년부터 연평균 1,250호의 주택을 제공할 예정
  - 거주 공간 확보
    - 뮌헨지역의  $\text{km}^2$ 당 인구수는 약 4,800명으로 주택건설이 가능한 부지의 추가 확보가 필요
    - 2030년까지 인구가 2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
    - 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활용 가능한 대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장기택지개발계획을 수립·실행할 예정
    - 또한 기존택지 정비와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20년 이내로 6만 1,00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할 예정

- 건설법규 정비
  - 뮌헨시는 2015년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 건설조례를 정비
  -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도시상세계획 수립 절차와 건축허가 절차 등이 최적으로 진행되도록 담당 부서 간의 협력 강화
  - 도시 내 주거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상세계획을 새로 수립
  - 도시 내 건설기준을 조정해 주택건설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
  
- 특별 프로그램 ‘모두를 위한 주거’의 청사진
  - 이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할 예정
  - 뮌헨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9년까지 시의 주택공사가 3,0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,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억 3,500만 유로 (1,682억 원)의 용자를 지원할 예정
  - 이를 통해 저소득층, 구직자 계층 및 망명을 승인받은 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제공할 예정

<https://www.muenchen.de/rathaus/Stadtfinfos/Presse-Service/2016/-Mehr-Wohnen---Strategien-f-r-erforderlichen-Wohnraum.html>